

# ‘21세기 원유’ 데이터 주권 강화

서울시,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  
사업비로 2억2009만원 투입  
“마이데이터 활용한 혁신행정”

서울시가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21세기 원유라는 평가를 받는 빅데이터의 원천인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데이터 주권은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뜻한다.

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시민의 적극적인 데이터 주권 행사를 지원할 정책적·기술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시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실시한다. 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0년 1월까지 ISP 수립 용역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사업비로 2억2009만원이 투입된다. 용역은 계약 체결일부부터 120일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서울시 본인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시민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전략방안 도출 ▲데이터 주권 관련 제도적·기술적 환경 분석 ▲시민 본인정보 기반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 및 운영방안 마련 ▲시민 본인정보 활용을 위한 혁신적 서비스 기획 등이다.

우선 시는 개인정보 수집·관리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검토한다. 서울시 데이터 주권 조례 등 법·제도적 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본인정보 취급 부서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사업도 발굴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해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용내역(이동거리, 시간)을 제공하면 시에서 해당 데이터를 에코마일리지와 결합해 제로페이 등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임대·매매 정보를 제공하면 시가 행정 정보를 연계해 수도·전기·가스 관련 주소지 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시는 “2020년 상반기에 정보전략계획 사업 결과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행정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추석명절에 임시로 개통될 고덕국제신도시 단지내 도로 /경기도

##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 임시개통

경기도, 추석 맞아 교통편의 제공

개선됐다.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귀성객 및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전체 도로에 대한 임시 개통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시개통된 구간은 단지내 도로 8개소(연장 6km)로, 이미 임시개통이 완료된 단지내 도로 493개소(연장 55km)와 현재까지 공사 완료된 단지내 도로 501개소(연장 61km)에서 자유로운 교통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입주민들은 이동시간 단축 등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내 서정리역과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를 잇는 동서대로 개통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환경이 크게

경기도는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돼 단지 내 도로가 법적으로 공용 개시될 때까지 임시개통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를 계획대로 추석명절 전에 우선 임시 개통하여 입주민들 및 고덕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느꼈던 교통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문제 뿐 아니라 입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자세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추석 대목 노린 비양심 판매업소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 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계자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일본산 가리비 등 압수품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 잠실, 경기 광역버스 5개노선 정류소 이전

(1100·1200·9302 등)

서울시, 잠실역 7번출구 혼잡 해소  
정차지역 주변 다른 정류소로 이전

서울시는 잠실역 7번 출구 버스정류소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10일부터 경기 광역버스 5개 노선의 정차지역을 잠실역환승센터 등 주변의 다른 정류소로 이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잠실역 7번 출구 버스정류소에

정차하는 남양주시 4개 광역버스 중 ‘1200번’과 ‘1200-1번’ 2개 노선은 잠실광역환승센터로, ‘1100번’과 ‘8001번’ 2개 노선은 잠실역 1·11번 출구 버스정류소로 이전한다. 하남시 광역버스 ‘9302번’은 잠실광역환승센터로 정류소를 옮긴다.

잠실역 7번 출구 버스정류소는 버스 정차 공간이 4면이지만 정차하는 버스

는 광역버스를 포함해 총 23개 노선으로 매우 혼잡한 상태였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이용버스의 정차 위치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 서울시 공무원시험 54과목,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

연간 4.1억 출제비용 절감 기대

2020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중 국어, 영어, 한국어 등 공통과목을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서울시는 10일 인사혁신처와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문제 출제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험문제를 통일해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시 거주제한을 두지 않고 필기시험일자가 달라 다른 시·도 거주자가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한번 더 응시할 수 있어 위탁 출제하는 16개 시·도와 달리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왔다”며 “서울시와 인사혁신처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험문제를 통일적으로 출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2020년 145과목을 출제할 예정

이다. 이중 국어 등 공통과목 54개(38%)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타 시·도와의 출제문제 경향성 일치, 시험문제 난이도 편차 최소화 등으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출제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간 4억 1000만원의 출제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조조할인’ 전체 시내버스로 확대

유형별로 200원, 400원, 450원 할인

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제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추석연휴 쓰레기 수거 중지

시·자치구에 26개 청소 상황실 설치  
청소 순찰기동반 324명 민원 등 접수

서울시는 12~14일 쓰레기 수거를 중지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자치구 환경미화원의 휴무로 쓰레기를 거둬들여 가지 않는다.

쓰레기 배출은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부터 가능하다. 단 구로구는 13일, 성동구·영등포구·관악구는 14일에도 배출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26개 청소 상황실이 설치된다. 청소 순찰기동반 324명이 청소민원 등 시

민불편사항을 접수해 처리한다. 16일부터 자치구별 청소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연휴 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수거해 갈 방침이다.

시는 추석 연휴 전인 6~11일 주요 도심지역과 골목길을 대상으로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5만여명이 참여하는 대청소를 실시한다.

김동원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쾌적한 명절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배출날짜와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